







# 한국평등의 사회



&lt;4&gt;

글신는자례

송영규  
(고려대대학원 경외과 졸업)

## I. 서론

사회복지장관 무엇인가?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힘들지만 사회적인 의미에서 해석한다면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기존의 노동력을 사회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으로 하여 노동력을 사회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장관 사회의 물적 기반을 정의하는 의미에서 노동력을 하여금 생산력을 증대시킬 등에 대한 조치로써 실시되었다. 이제에도 따르면, 북한의 진료제도는 이 원칙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주거지를 생활단계로 하여 주거지단위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고, 우편보급은 청진방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고, 우편보급은 우편보급의 실시통 확대가 부여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양로연금으로 이것은 남 60세, 남 55세부터 거듭되며, 기본급이 60~70%와 식량배급이 그나마 사방할 때까지 지급되는

다. 1978년 4월18일 사회주의 노동법이 제정된 후 실시된 연금제도는 노동능력을 생산한 자나 국가와 공포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종류로는 폐질연금, 유가연금, 양로연금, 영예군인연금 등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 유가연금과 영예군인연금의 경우에는 일정 연금과 더불어 취업안전, 우편보급의 실시통 확대가 부여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양로연금으로 이것은 남 60세, 남 55세부터 거듭되며, 기본급이 60~70%와 식량배급이 그나마 사방할 때까지 지급되는

- 북한의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 북한의 교육제도
- 북한의 의·식·주 생활
- 북한의 사회복지제도
- 북한의 사회문화와 그 해결

(보은) 북한의 기본노선과 남북한 사회구조 비교교찰



출신의 기쁨을 나누는 평양산원의 TV면회 모습 (사진: 갈라진 45년 기사본 반쪽, 1990)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두수준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생산와의 연소로 생산성향상을 생산활동과의 무관에 대한 자주성·통일·인도주의 일반적 의미로 사회복지정책(의료보장, 연금제도 등), 둘째는 노동의 문제를 분야별의 형식으로 해결하는 경제복지정책이 비슷하다는 특징은 물론, 각각에는 주변과 함께 복지정책이 수증급에 이루어진다. 일련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는 의료보장제도와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여성활동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 II. 의료보장제도

북한의 복지정책은 가장 특징적인 것은 보건의료부문이다. 1980년에 제정된 「인민건강법」에 따르면, 북한보건정책의 핵심은 노동주민의 의료서비스와 복지정책과 전주민의 위생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러의 목적은 단기화기의 북한 경제으로 북한에서는 무상치료제와 의사당방구제가 실시되고 있다.

1960년 2월에 선보였던 지금 까지 지속되고 있는 노상치료제는 무상치료제와 의사당방구제가 실시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1983년 현재 일 반병원 135개(51개, 전문병원 9개)에, 의료진료기관 5414개 14개의 병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의료인당의 진료인구로 보면 약 1천명에 이르며, 병상의 수로는 본다면 천명망 13개의 병상이 배치되고 있다. 전체적으론 병원의 수가 크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시설에 한정되는 진료방법에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연금제도와 보험제도로 대변된다.

## III. 사회보장제도와 문화제도

특성을 가진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노동자, 사무원등의 기증금에서 1%, 국가기금소·사회단체에서 58%,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의 출자를 통하여 형성된다.

## IV. 여성활동보장제도

남한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른 점은 사회보장제도에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산재보험, 실업보험, 상해보험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생산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저급되는 것으로 임금의 75%를 저급받는 1급에서부터 50%를 저급받는 5급까지 차등화된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능력과 의사로 가지고 있지만 1개월이상 무직으로 있고 생계가 빙어할 경우에 해당하며 임금의 20%를 6개월간내에서 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 여

극장, 2개의 박물관, 3개의 기념관, 8개소의 문화회관, 2개의 종교시설, 3개의 체육관이 있는데 주민들은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한번이상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시설은 모두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공장, 기업소의 문화시설로서 「하는」문화의 문화시설로써 있다.

## V. 결론

이차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의 사회복지정책은 상당한 수준까지 도달하게 됨으로써 정기적으로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보건과 보양, 연금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보장정책의 경우에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크게 뛰어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공장, 기업소는 의무적으로 공장문화센터(1.2평)를 운영하는데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뛰어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노동자들이 일정 시간마다 출근하거나 출퇴근하는 경우에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것

것으로 한 번이상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시설은 모두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공장, 기업소의 문화시설로서 「하는」문화의 문화시설로써 있다.

## VI. 결론

남한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른 점은 사회보장제도에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산재보험, 실업보험, 상해보험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생산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저급되는 것으로 임금의 75%를 저급받는 1급에서부터 50%를 저급받는 5급까지 차등화된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능력과 의사로 가지고 있지만 1개월이상 무직으로 있고 생계가 빙어할 경우에 해당하며 임금의 20%를 6개월간내에서 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 여

극장, 2개의 박물관, 3개의 기념관, 8개소의 문화회관, 2개의

종교시설, 3개의 체육관이 있는데 주민들은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한번이상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시설은 모두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공장, 기업소의 문화시설로서 「하는」문화의 문화시설로써 있다.

## VII. 결론

남한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른

점은 사회보장제도에 있다. 사

회보장제도는 산재보험, 실업

보험, 상해보험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생산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저급되는 것으로 임금의 75%

를 저급받는 1급에서부터 50%

를 저급받는 5급까지 차등화

된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능력과 의사로 가지고 있지만

1개월이상 무직으로 있고 생계

가 빙어할 경우에 해당하며 임

금의 20%를 6개월간내에서 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 여

극장, 2개의 박물관, 3개의

기념관, 8개소의 문화회관, 2개의

종교시설, 3개의 체육관이 있는데 주민들은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한번이상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시설은 모두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공장, 기업소의 문화시설로서 「하는」문화의 문화시설로써 있다.

## VIII. 결론

남한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른

점은 사회보장제도에 있다. 사

회보장제도는 산재보험, 실업

보험, 상해보험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생산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저급되는 것으로 임금의 75%

를 저급받는 1급에서부터 50%

를 저급받는 5급까지 차등화

된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능력과 의사로 가지고 있지만

1개월이상 무직으로 있고 생계

가 빙어할 경우에 해당하며 임

금의 20%를 6개월간내에서 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 여

극장, 2개의 박물관, 3개의

기념관, 8개소의 문화회관, 2개의

종교시설, 3개의 체육관이 있는데 주민들은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한번이상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시설은 모두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공장, 기업소의 문화시설로서 「하는」문화의 문화시설로써 있다.

## IX. 결론

남한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른

점은 사회보장제도에 있다. 사

회보장제도는 산재보험, 실업

보험, 상해보험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생산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저급되는 것으로 임금의 75%

를 저급받는 1급에서부터 50%

를 저급받는 5급까지 차등화

된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능력과 의사로 가지고 있지만

1개월이상 무직으로 있고 생계

가 빙어할 경우에 해당하며 임

금의 20%를 6개월간내에서 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 여

극장, 2개의 박물관, 3개의

기념관, 8개소의 문화회관, 2개의

종교시설, 3개의 체육관이 있는데 주민들은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한번이상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시설은 모두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공장, 기업소의 문화시설로서 「하는」문화의 문화시설로써 있다.

## X. 결론

남한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른

점은 사회보장제도에 있다. 사

회보장제도는 산재보험, 실업

보험, 상해보험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생산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저급되는 것으로 임금의 75%

를 저급받는 1급에서부터 50%

를 저급받는 5급까지 차등화

된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능력과 의사로 가지고 있지만

1개월이상 무직으로 있고 생계

가 빙어할 경우에 해당하며 임

금의 20%를 6개월간내에서 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 여

극장, 2개의 박물관, 3개의

기념관, 8개소의 문화회관, 2개의

종교시설, 3개의 체육관이 있는데 주민들은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한번이상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시설은 모두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공장, 기업소의 문화시설로서 「하는」문화의 문화시설로써 있다.

## XI. 결론

남한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른

점은 사회보장제도에 있다. 사

회보장제도는 산재보험, 실업

보험, 상해보험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생산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저급되는 것으로 임금의 75%

를 저급받는 1급에서부터 50%

를 저급받는 5급까지 차등화

된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능력과 의사로 가지고 있지만

1개월이상 무직으로 있고 생계

가 빙어할 경우에 해당하며 임

금의 20%를 6개월간내에서 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 여

극장, 2개의 박물관, 3개의

기념관, 8개소의 문화회관, 2개의

종교시설, 3개의 체육관이 있는데 주민들은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한번이상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시설은 모두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공장, 기업소의 문화시설로서 「하는」문화의 문화시설로써 있다.

## XII. 결론

남한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른

점은 사회보장제도에 있다. 사

회보장제도는 산재보험, 실업

보험, 상해보험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생산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저급되는 것으로 임금의 75%

를 저급받는 1급에서부터 50%

를 저급받는 5급까지 차등화

된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능력과 의사로 가지고 있지만

1개월이상 무직으로 있고 생계

가 빙어할 경우에 해당하며 임

금의 20%를 6개월간내에서 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 여

극장, 2개의 박물관, 3개의

기념관, 8개소의 문화회관, 2개의

종교시설, 3개의 체육관이 있는데 주민들은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한번이상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시설은 모두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공장, 기업소의 문화시설로서 「하는」문화의 문화시설로써 있다.

## XIII. 결론

남한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른

점은 사회보장제도에 있다. 사

회보장제도는 산재보험, 실업

보험, 상해보험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생산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저급되는 것으로 임금의 75%

를 저급받는 1급에서부터 50%

를 저급받는 5급까지 차등화

된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능력과 의사로 가지고 있지만

1개월이상 무직으로 있고 생계

가 빙어할 경우에 해당하며 임

금의 20%를 6개월간내에서 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 여

극장, 2개의 박물관, 3개의

기념관, 8개소의 문화회관, 2개의

종교시설, 3개의 체육관이 있는데 주민들은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한번이상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시설은 모두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공장, 기업소의 문화시설로서 「하는」문화의 문화시설로써 있다.

## XIV. 결론

남한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른

점은 사회보장제도에 있다. 사

회보장제도는 산재보험, 실업

보험, 상해보험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생산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저급되는 것으로 임금의 75%

를 저급받는 1급에서부터 50%

를 저급받는 5급까지 차등화

된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능력과 의사로 가지고 있지만

1개월이상 무직으로 있고 생계

가 빙어할 경우에 해당하며 임

금의 20%를 6개월간내에서 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 여

극장, 2개의 박물관, 3개의

기념관, 8개소의 문화회관, 2개의

종교시설, 3개의 체육관이 있는데 주민들은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한번이상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시설은 모두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공장, 기업소의 문화시설로서 「하는」문화의 문화시설로써 있다.

## XV. 결론

남한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른

점은 사회보장제도에 있다. 사

회보장제도는 산재보험, 실업

보험, 상해보험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생산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저급되는 것으로 임금의 75%

를 저급받는 1급에서부터 50%

를 저급받는 5급까지 차등화

된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능력과 의사로 가지고 있지만

1개월이상 무직으로 있고 생계

가 빙어할 경우에 해당하며 임

금의 20%를 6개월간내에서 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 여









# 재정난이 자초한 교육의 사각지대

## —시간강사 실태

### 신분분석

대학에서 시간강사의 역할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기자만 신분은 일용잡금노동자에 해당된다. 이들은 대학 전체교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월 100여명 정도로 6개월 단위로 계약기위로 노동하여 하는 치명적인 신세이다. 지난해 9월 문교부가 경기기획에 출범한 '전국대학교수현황'에 따르면 전국 1백여개 대학의 전임교수는 2만8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에 규정된 시간강사 계정비율인 30%를 훨씬넘어 경제교원의 47%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처럼 현재 대학 전체 강의의 40%정도를 시간강사들이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이나 신분증과 처우에서 상당한 불평이 있을 뿐이다.

교양·부전공·전공교과목별로 저작권과 교수수에 따른 대입교수와 외래강사들, 담당교수를 살펴보면 69년 2기(기준), 전체 교과목 수에 따른 대입교수는 전체 교과목 수에 따른 대입교수 72.8%는 해당하는 교과목을 시간강사로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71.8%, 용인캠퍼스 73.9%, 계선대학 평균 수강생 69명이다.)

부전공의 경우에도 18개 부전

공 영역에 전체 3백30개 개설 과목의 69%를 (서울71.5%, 용인 68.3%) 시간강사가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과목은 25.3%를 서울 23.3%, 용인 22.4%로 해당한다. 이처럼 본교의 상을 시간강사가 담당, 이의 비율이 전국대학 평균치를 훨씬뛰어넘는 경우 50% 이상을 시간강사로 맡고 있다.

본교의 경우 8% 인상과, 서

전 월등하고 있다.

대학에 시간강사들은 그동

내에 받는 시기마다들은 그동

# 노동자들 일어서고 있다



공권력 투입 당시 사육목상에 올라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노동자 2백50여명이 경찰에 의해 견intern 연행 당하고 있다.



내의 기자들은 2차대전 당시 미국서 수위한 것을 예지각 사용하고 있어 매우 날카로운 상태이고, 그로인해 신간제에 대한

85명을 거쳐하여 1차전장을 마무리 지은 경찰총의 2차전장으로 육상노동자 체포작전은 그야말로 가공화물이 되어버렸다. 당시 노동자들은 이익으로부터 차단되거나 차단되는 경찰총의 사원이었다. 그들은 고지사리리를 세우고 소방호스와 쇠푸른을 거두며 농성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부정을 저지하고 노동자들의 몸에 위협적이 되었다. 신경번

## 포크레인·소방차 8대 동원 초토화작전 노동자·학생 연대하여 제2의 투쟁준비

세는 10여분의 그 상황을 지우려 일컬었다. 경찰의 빙판을 벗어나는 것은 그들의 목표였다. 그들이 노동자들의 고통을 대변해 주는 만한 노조집부는 전혀 없었다. 노동자들은 그들이 노동자들의 부정을 저지하고 노동자들의 몸에 위협적이 되었다. 신경번

변했다는 노동자들의 저지처럼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였다. 그 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대변해 주는 만한 노조집부는 전혀 없었다.

8월 8일에는 시민주권집회가 개최되었는데, 그들은 그들이 노동자들의 부정을 저지하고 노동자들의 몸에 위협적이 되었다. 신경번

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이다. 11일 공권력 투입으로 강단 대입을 해절한 청탁제작장을 다음날 각 지역마다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광고를 발표하여 번역을 늘어 놓았고, 공장에는 무기한 휴교조치를 내렸다. 한편, 공권력 투입 후에는 노동자들은 하나 둘씩 부산대로 걸어 남부로 향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의 부정을 저지하고 노동자들의 몸에 위협적이 되었다. 신경번

3월 5일에 연행, 구속 12명, 불 구속 7명, 수감 3명, 즉석 14명. 부산지역에서는 유예가 드문 일로 노동생상은 모두 36명에 걸쳐진 대량의 차량으로 흐르고, 그간의 회사에서 비단의 인 행위들과 그에 맞선 노동자들의 극히 기본적 생존권 요구가 사라지면서 사방점임을 새롭게 확장하였습니다.

『언론』 회사 위쪽에서 좌우만 소리가 나더니 이어 정문에서 좌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경망방위위원회로서 정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비단의 차트를 사이에 두고 난쟁 치울 징이 주노조 파괴와 노동운동 탄압은 회임장을 민족의 진정으로 좌우만에 있었죠. 곧 포크레인에 의해 비단의 차트가 떠나겠고 우리들은 사단의 풍파 속으로 피했습니다. 나에게는 선으로 피했고 그때 침입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써우다 경찰을 연행, 12일 출발한 조합원 신증(26)씨는 4시간의 사투를 들어가 본다.

— (주) 풍산금속은 1968년에 창립, 20년째 국내 30여 개별로로 성장한 기업으로 현재 계열로는 경상남도 진해에 있는 신공장으로서 원료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그에 맞춰 원자재로는 철강, 암석, 원유, 석유, 종류의 원료를 수입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노동자들의 일금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우리

— (취재팀) 이일주 기자 박현숙 기자

— (취재팀) 이일주 기

# 예비군 문무대입소 철회

## 예복협 강화 계기돼 식사·교통 등 편의마련 협의중

지난 8월말경 서울캠퍼스는 9월 18일(화), 19일(수) 용인캠퍼스는 20일(목) 예비역 대입소를 일정으로 결정·방문한 학교측에 대해 양캠퍼스 출판대상에 비역학우들은 저마다 서명작업을 시작해온데 예비역총회 등의 문무대입소 거부운동을 향기자들이 빙어 예비역총회 모두 「문무대입소 폐지」를 학교측과 협의하게 되었다.

서울캠퍼스는 지난 10일(월) 비상기상과 예비역 학생대표들이 저마다 서명하는 등의 문무대입소 폐지를 협의했고, 이어 이제(17%) 회의에서 교육감사문제와 학생에게서 4명의 고지문·설명·요구안을 전달한 후 예비역 학우들이 저마다 서명·설명하고 예비역 학생대표들이 저마다 서명하는 등의 문무대입소 폐지를 협의했고, 이어 저마다 서명하는 등의 문무대입소 폐지를 협의했다.

〈서울캠퍼스〉

### 도서관 지하휴게실 개장 2백여 좌석, 6개 매점 이용 가능

서울캠퍼스 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까지 도서관지하에서 서 예비역으로 도서관지하에 예비역대표 10여명이 문무대입소 폐지로 출판대상 편의사항으로 저항·증진공제, 교육공제에 대한 학생들의 선언·체계적 촉진시각을 유세대회까지로 대체하는 것, 미네오·선별·장학금의 요구사항에 학교측에 요구해서 문무대입소 폐지는 학교 했으나 다른 학생들은 아직 타협을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오는 18일(중장), 학교단장, 예비역대표, 학생대표에

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 학교측은 개성기후 대회에 참가하겠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밝혔지만 이를 학교측의 사소한 부주의여 학생들의 휴게실 이용과 일대·직영매점에 커나란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인식으로 교육공제 조성과 함께 향후에는 정기조성·상평점장을 책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주로 예정된 도서관지하 휴게실 개장이 정기조례부터 지하매장으로의 유수로인해 이날로 늦춰진데 대해 학교측은 학생들에게 학생·교수·직원으로 구성된 학교복지위원회를 제안하고자 이를 받아들여 실무적임을 계획 중이다.

〈도서관지하의 공사비 부실화

도서관 및 학생회관 연합실과 석정리 등을 기본적 행동 내용으로 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의 일요 활동내용을 말한다.

순찰대는 이미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등에서 학생회관으로 조치·운영되고 있는데

〈도서관지하의 휴게실 개장〉

〈도서관지하 휴게실 개장〉

〈도서관지

